

---

# 조선전기 王妃 加封胎室에 관한 연구

---

홍성익

(강원대학교 강사)

---

머리말

I. 왕비 태실의 文獻資料 검토

II. 왕비 태실의 考古資料 검토

III. 몇가지 異說의 재검토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B5A07048549).

● 투고일: 2015. 2. 9.      ● 심사일: 2015. 2. 26.      ● 게재확정일: 2015. 3. 9.

www.kci.go.kr

## 요약

이 논문은 조선전기 왕비 3인의 태실에 대한 연구이다. 신라시대부터 간헐적으로 전승되어 온 장태습속은 조선시대에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한 모든 王과 王孫들의 태실이 설치되었다. 이 중에서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아기태실에 많은 석물을 더하여 나말여초기의 八角圓球型 浮屠와 같은 중앙석물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왕릉의 난간석과 같은 형태의 석물을 더하여 가봉태실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조선전기의 일부 왕비에게 이러한 가봉태실을 조성하는 예가 확인되고 있다.

태실이 조선후기로 오면서 관리의 소홀로 붕괴되거나 李王職에서 西三陵域으로 이봉하면서 왕의 가봉태실이 인위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고, 소헌왕후와 폐비윤씨의 태실도 파괴되어 원형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정도이다. 정희왕후는 가봉되었는지, 아기태실로 남은 것인지도 명확히 연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연구자간에 왕비의 태실지 위치가 다르고, 태실 주인공도 혼선이 있어 왔으며 문헌 간에도 동일한 태실을 다른 왕비의 태실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그리고 왕족이 아닌 士大夫家 출신의 딸들이 어떻게 경북 영주 소백산, 강원 홍천 공작산, 경북 예천 용문사에 각기 장태되었고, 왜 이 지역이 장태지로 선정되었는지도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문헌과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태봉, 태실, 가봉태실, 소헌왕후, 정희왕후, 폐비윤씨

## 머리말

한국에서 태실의 조영은 늦어도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오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태치리 문화의 한 양상으로 『삼국사기』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태령산에 김유신(595~673년)의 태를 장태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sup>1)</sup> 고려후기에 들면 임금과 태자의 태를 묻었다는 자료가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풍습은 조선시대에도 확대 계승되어 재위한 임금은 물론이고 왕의 자녀들까지도 대부분 태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조선 전기에 일부 왕비의 경우 가봉태실이 설치되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 왕위에 재위한 1대 태조부터 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연산군·효종·철종·고종 등 4대왕을 제외하고 모든 왕들의 태실이 알려져 있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이 중에서 태실이 전하지 않는 연산군의 경우 그의 어머니인 폐비윤씨는 연산군을 1476년에 출산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가봉태실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해인 1478년에 가봉태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연산군은 형제가 16명인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태실이 10명 이상이고, 자녀로는 6명의 아들과 5명의 공주 태실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세자였던 연산군의 아기태실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효종의 경우 그의 형인 소현세자의 태를 인조와 황해도 해주 정토사 앞산에 함께 묻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봉림대군이던 효종 역시 태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3)</sup> 따라서 현재 현장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철종과 고종의 경우를

1) 金富軾 著·李丙燾 譯, 1991, 『三國史記』, 284쪽.

2) 洪性益, 2014, 「韓國 胎室의 기초적 이해」,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 20쪽.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모든 왕들의 태실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재위한 왕이나 그들의 자녀들은 왕실 상태의 예에 따라 처리되었지만 왕비의 경우에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가봉태실이 설치되기에는 몇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왕비는 출생 당시의 신분이 왕족이 아니라 私家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태는 민간의 태처리 습속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사대부의 신분이었던 이들의 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문제이다. 기존에 연구되어진 민간 태처리 습속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태를 땅에 묻는 埋胎, 태우는 燒胎, 말려 보관하는 乾胎, 흐르는 물에 水藏하는 水中棄胎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행한 태처리 습속은 각기 독특한 양상이 보이고 있지만 그 절차는 태를 신성하게 여겨 정성스럽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특히 매태의 경우에는 김유신 외에도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는데 ‘… 俗人이 死胎를 낳은 일이 있는데 지방속담에 말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의 무덤에 묻으면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므로 남몰래 圓光(542~640년)의 무덤 옆에 묻었다.’<sup>5)</sup>라는 것을 볼 때 태를 땅속에 묻는 민간의 태처리 습속도 신라시대까지 소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구분한 4가지의 방법 중에서 소태와 수중기태는 태를 처리한 이후 다시 볼 수 없는 처리방법이고 매태와 건태는 후대에 다시 재처리할 수 있으나 매태의 경우 용기에 넣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다면 부패해서 이를 재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왕비의 경우 출생 당시에는 사대부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비가 된 이후에야 왕실의 신분으로 변모되어 그들의 태를 왕실의 예법에 맞게 태실을 가봉

3) 李周煥 外, 1999, 『朝鮮의 胎室』 I · II · III, 전주이씨대동종약원.

洪性益, 2014, 앞의 논문, 9~71쪽.

4) 洪性益, 1998, 「江原地域 胎室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3, 46~55쪽.

5) 一然 著 · 李民樹 譯, 1990, 『三國遺事』, 295쪽.

한 것이므로 적어도 태를 재처리한 시기는 왕비가 된 이후여야 한다. 따라서 태를 매태하였을 경우 태는 부패하기 쉬운 유기물이므로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 왕비의 태를 가봉하였다면 건태한 것을 가봉했거나 용기에 넣어 매태했을 경우 이를 가봉태실에 매납하였을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태실 연구는 의궤와 등록의 번역과 분석, 아기비와 가봉비를 중심으로 태실의 주인공을 밝히고 나아가 왕실의 가계도를 재정립하는 문제, 가봉한 태실의 석조물에 대한 석조미술사, 胎壺를 중심으로 하는 陶器史, 태실 입지를 중심으로 하는 風水地理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왕비 가봉태실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고 몇 편의 연구에도 일부 오류가 있어 이 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왕비들의 태실은 世宗의 妃인 昭憲王后, 世祖의 妃인 貞熹王后, 成宗의 妃인 廢妃尹氏가 있는데 이들의 태실이 어디에 소재하고, 태실이 설치되는 과정, 가봉태실의 형상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 왕비 태실의 文獻資料 검토

### 1. 소헌왕후 태실

소헌왕후는 세종의 비로 1395년(태조 4) 9월 28일 靑川府院君 沈溫과 그 부인 順興安氏의 장녀로 출생하였다. 소헌왕후는 1408년(태종 8)에 忠寧君과 혼례를 올리고 敬淑翁主에 봉해졌으며 1417년(태종 17)에 三韓國 大夫人에 봉해졌고, 1418년에 충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敬嬪이 되었다. 그해 8월 충녕대군이 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中宮이 되어 恭妃

라는 책봉명을 받았다. 소헌왕후는 8남 2녀를 출산하고 1446년(세종 28)에 사망하였다.

소헌왕후의 가봉태실은 조선시대 왕비의 태실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예이다. 소헌왕후는 『璿源系譜紀略』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의 사저에서 태어나<sup>6)</sup> 그곳에 태를 묻었는데 이 시기에는 청송심씨 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실에서 행하는 태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따라서 태처리는 민간의 습속을 따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자료는 실록에서도 보이고 있다.

자료 1. 중궁 태를 처음에는 양주 동면 여염 사이에다 갈무리하였는데, 다시 길한 곳을 가려서 옮겨 갈무리하도록 명하였다.<sup>7)</sup>

즉, 소헌왕후는 양주에 있는 청송심씨의 사저에서 출생하고 태를 양주의 동면에 갈무리하였다. 세종 20년에 이 갈무리한 태를 가봉하기 위하여 移藏하라는 명이 내려지게 되며 이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sup>8)</sup> 3개월 20여일이 지나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산22-2번지에 장태되었다.<sup>9)</sup>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2. ... 중궁의 태를 경상도 순흥부 中輪寺 洞에 묻었다.<sup>10)</sup>

자료 3. 예조에서 아뢰기를, “동궁 장태 안위제의 신주에는 중궁 장태 신주의 예에 의하여 쓰기를, ‘東宮胎室之神’이라 하고, 제사가 끝나면 그 신주를 높고 깨끗한 곳에 묻을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11)</sup>

6) 民族文化, 1987, 『璿源系譜紀略』, 62쪽.

7) 『세종실록』 20년 1월 20일.

8) 위의 책, 20년 3월 17일.

9) 李周煥 外, 앞의 책, 20~21쪽.

심현용, 2014, 「조선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조성과 구조 복원」, 『嶺南考古學』 68, 74~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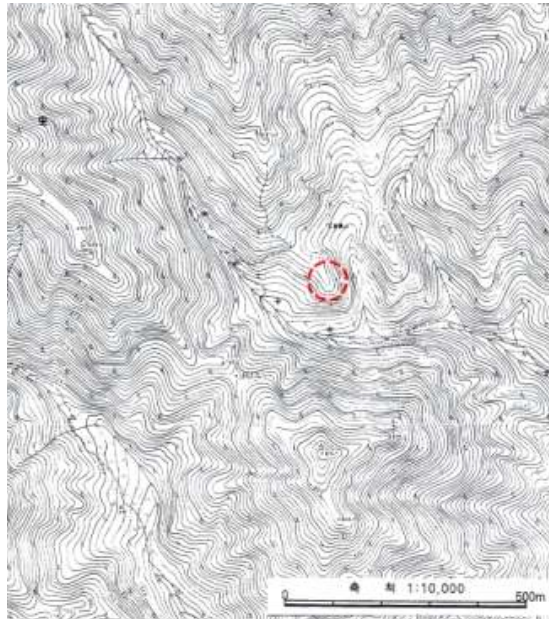
10) 『세종실록』 20년 5월 15일.

11) 『세종실록』 21년 1월 10일.

자료 4. 輪庵峯 : 소백산에 있다. 군에서 북쪽으로 32리에 있으며, 본조 소헌왕후의 태를 묻었다.<sup>12)</sup>

자료 5. 輪庵峯 : 소백산에 있다. 본조 소헌왕후의 태를 묻었다.<sup>13)</sup>

자료 6. 慶元峯 : 군에서 북쪽으로 22리 떨어져 있으며 고려 충숙왕의 태를 안치했다. 輪庵奉 : 군에서 북쪽으로 32리에 있으며 본조 소헌왕후의 태를 안치했다. 草庵洞 : 군에서 북쪽으로 45리 떨어져 있으며 고려 충렬왕의 태를 안치했다. 郁錦洞 : 군에서 북쪽으로 13리 떨어져 있으며 고려 충목왕의 태를 안치했다.<sup>14)</sup>



【그림 1】 소헌왕후 胎室址<sup>15)</sup>

- 
- 12)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493쪽.
  - 13) 海東古地圖研究所, 2012, 『海東全圖』 上, 186쪽.
  - 14)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493쪽.  
국사편찬위원회, 1973, 『輿地圖書』 下, 406쪽.
  - 15) 심현용, 2014, 앞의 논문, 76쪽.

위의 자료를 종합하면 소헌왕후는 경기도 양주군 동면에서 출생하고 이 마을에 埋胎된 아기태를 1439년(세종21)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로 이봉하여 가봉태실을 설치하였다. 이 자료에서 소헌왕후의 친정인 沈氏 집안에서는 아기태를 매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정희왕후 태실

정희왕후는 세조의 妃이다. 관중추부사 증 영의정 尹璠의 딸로 1418년(태종 18·세종 즉위년) 11월 11일에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sup>16)</sup> 정희왕후는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전해지고 예종이 급서하자 의경세자의 장자인 월산대군이 있음에도 동생인 잘산군을 임금에 즉위시키고 수렴청정을 하는 등 정치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정희왕후는 2남 1녀를 출산하고 1483년(성종 14)에 사망하였다.

정희왕후의 태실은 문헌자료에 의하면 홍천군 공작산에 매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그의 태실이 수타사 금당인 대적광전 뒷산에 설치되었다는 설과<sup>17)</sup> 현재의 수타사 서쪽의 덕지천 건너편 봉우리에 있다는 두가지의 설이 제기되어 왔는데<sup>18)</sup> 먼저 정희왕후의 태실에 관련된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료 7. … 大行王后 尹氏는 坡平의 世家로서, … 皇考인 諱 尹璠은 … 시호는 貞靖이다. 皇妣 李氏 또한 仁川의 著姓으로 洪寧부대부인에 봉해

16)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에서 정희왕후의 출생지를 충남 홍성군인 洪州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필자도 비판적 검토없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17) 李周煥 外, 앞의 책, 33~34쪽.

18) 洪性益, 2008, 「홍천 공작산 貞憲王后 胎室址 位置比定」, 『江原文化史研究』 13, 59~74쪽.

졌는데, 정헌대부 참찬의정부사로서 시호가 恭度公인李文和의 딸이니, 永樂 무술년 11월 丁亥에 태후를 洪川の 公衙에서 낳았다.<sup>19)</sup>

자료 8. 洪川縣 : 名宦 : 尹璠 爲縣監.<sup>20)</sup>

위의 자료를 보면 정희왕후는 기존의 說처럼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고 윤번이 홍천 현감으로 재임할 당시에 홍천의 관아에서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희왕후의 아기태에 관하여 후대의 많은 기록들이 남겨졌다.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 9. 공작산 : 현의 동쪽 25리에 있는데 정희왕후의 태를 봉안하였다.<sup>21)</sup>

자료 10. 공작산 : 군의 동쪽 25리의 영귀미면에 있는데 정희왕후의 태를 봉안하였다.<sup>22)</sup>

이로 보면 정희왕후의 태를 공작산에 매태했다는 최초의 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이 지리지는 1478년(성종 12)에 초본이 완성되고 1499년(연산군 5)에 2차 수찬본이 간인된 이후 1530년(중종 25)에 3차 수찬본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완된 것은 「新增」으로 표기하였는데 태 봉안관련 자료에는 이 표기가 없다. 이는 태실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성종 대에 편찬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성종은 정희왕후에 의하여 동북형인 월산대군을 대신하여 임금이 오르게 되는 정희왕후의 친손자이다.

---

19) 『성종실록』 14년 6월 12일.  
民族文化, 1987, 『濔源系譜紀略』, 70쪽.  
濔源寶鑑編纂委員會, 1995, 『濔源寶鑑』 III, 175쪽.

20) 국사편찬위원회, 1973, 『輿地圖書』 上, 604쪽.  
韓國學文獻研究所, 1986, 『邑誌』 江原道②, 230쪽.

21)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신증상동국여지승람』 VI, 66 · 17쪽.

22)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7, 『江原道邑誌』 六, 373 · 405쪽.  
韓國學文獻研究所, 1986, 『邑誌』 江原道①, 237쪽.  
\_\_\_\_\_, 1986, 『邑誌』 江原道②, 229쪽.

따라서 편찬되는 시기로 보거나 정희왕후와 성종의 혈연적 관계를 보더라도 공작산에 태를 묻은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공작산에 매태했다는 태실의 위치 문제이다. 공작산은 홍천군 동면과 화촌면에 걸친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자료 9】와 【자료 10】을 보면 태실은 홍천읍내에서 동쪽으로 25리 지점에 있고 구체적으로 영귀미면에 소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영귀미면을 구성하는 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1. 영귀미면 : 노천리 30리, 좌운리 40리, 속초리 20리, 신봉리 20리, 덕치리 10리, 개운동 10리, 후동리 15리, 월운리 20리, 방랑동 20리, 삼현리 10리, 수동리 10리, 성전리 10리이다.<sup>23)</sup>

자료 12. 영귀미면 : 좌운리 동쪽 15리, 노천리 동쪽 40리, 속초리 동쪽 20리, 월운리 동쪽 20리, 성전리 동쪽 15리, 덕치리 동쪽 15리이다.<sup>24)</sup>

이를 보면 영귀미면은 노천·좌운·속초·신봉·덕치·개운·후동·월운·방랑·삼현·수동·성전리로 좁혀지고, 이 중에서 좌운·개운·후동·월운·방랑·삼현·수동·성전리는 공작산과 관련없는 지역이며, 노천·속초·신봉·덕치리는 공작산 내에 있는 마을이다. 또한 노천리와 속초리는 공작산 주변에 있으나 이 지역은 남쪽의 오음산과 더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신봉리와 덕치리가 지역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발간시기가 최근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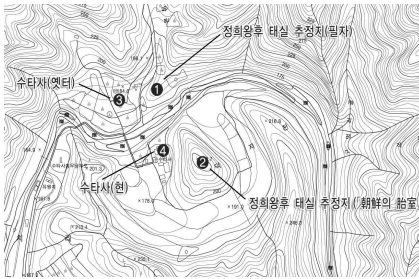
자료 13. 공작산 : … 세조 왕비 정희왕후 윤씨의 태를 묻었다 하며 산 아래에는 수타사가 있음.<sup>25)</sup>

23) 서울대학교 奎章閣, 1997, 「洪川郡邑誌」, 『江原道邑誌』 六, 395~396쪽.

24) 서울대학교 奎章閣, 1997, 「洪川縣邑誌」, 『江原道邑誌』 六, 403쪽.

25) 한글학회, 1967, 『한국지명총람』 2 강원편, 521쪽.

위의 자료에서 태실이 소재한다고 하는 수타사는 덕치리에 위치하고 있다. 위의 자료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태실이 수타사 뒷산에 있다고 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자료의 전체적인 편집체제를 보면 현장을 답사하고 지역주민의 구술을 바탕으로 발간한 것을 보면 위의 자료는 어느 정도 신빙할 가치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지역 주민에게 전해지는 태능산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수타사 요사채에서 덕지천 건너편의 작은 봉우리라고 한다.<sup>26)</sup> 따라서 【그림 2】와 【그림 3】에서 지칭한 ❶지점이 정희왕후의 태실지로 판단되고 파평윤씨인 윤번의 가문도 청송심씨인 심운의 가문과 같이 아기태를 매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정희왕후 태실지<sup>27)</sup>



【그림 3】 정희왕후 태실지

### 3. 폐비윤씨 태실

폐비윤씨는 1455년 윤6월 1일에 봉상시 판사를 지낸 威安尹氏 尹起畎과 장흥부부인 高靈申氏의 딸로 태어났다. 폐비윤씨는 1473년(성종 4)에 후궁간택으로 淑儀에 봉해졌고 1474년에 성종의 비인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1476년에 왕비로 책봉되고 11월에 원자를 낳았다. 1479년(성종 10)에 왕비에서 폐위되고 1482년에 사사되었다. 아들인 연산군에 의해 齊獻王

26) 朴建煥(1941년생. 홍천군 동면 덕치리 145번지 출생 및 거주)翁 口述.

27) 洪性益, 2008, 앞의 논문, 72쪽.

후에 추송되었으나 연산군이 폐위되자 폐비윤씨에게 주어졌던 모든 관작과 존호는 삭탈되었다.

폐비윤씨의 아기태실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는다. 단지 아기태실이 예천에 있었을 가능성은 정희왕후와 같이 부친인 윤기견이 예천군수로 재임할 당시에 출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14. … 성삼문 · 윤기견을 좌천하고 …<sup>28)</sup>

자료 15. 宦蹟 : 尹起敝<sup>29)</sup>

위의 【자료 14】와 【자료 15】를 보면 윤기견은 1454년 1월 28일 이후 어느 시기에 예천군수로 좌천되어 재임하는 시기인 1455년 윤6월 1일에 폐비윤씨를 출산하였다. 세조는 같은 해 단중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아 윤6월 11일에 등극하고 윤기견은 같은 해 12월 27일에 좌익원종공신 2등관에 녹선되면서 중앙으로 복귀한다. 이는 윤번이 홍천현감에 재임할 때에 정희왕후를 출산하자 홍천의 길지를 찾아 홍천 공작산에 매태한 것과 같이 윤기견이 예천군수로 재직할 당시에 예천 용문사 경내지에 장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태실에 대한 자료는 왕비가 된 이후에 보이고 있다. 소헌왕후의 경우 아기태실이 양주지역에 있는 것을 이봉하여 가봉한다는 자료이지만 폐비윤씨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6.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왕비태실의 수호군은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궁태실이 경상도 예천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다시 살펴서, 만약 그 산이 불길하거든 길지로 옮겨 안치하고 수호군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수

28) 『단종실록』 2년 1월 28일.

29) 국사편찬위원회, 1973, 『輿地圖書』 下, 396쪽.

호군을 두면 경작을 금하는가?”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작을 금하면 백성의 폐해가 많은 것이니, 아직 그대로 두라.”하였다.<sup>30)</sup>

위의 자료를 볼 때 1477년(성종 8)에 왕비의 태실이 예천에 있는데 길지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길지가 아니면 이봉을 하고 수호군을 두자는 문제와 함께 주변 농경지에 대한 경작을 금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이는 그동안 수호군을 두지 않았고 주변 농지에 대한 경작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즉 1476년에 왕비가 되고 그 해에 원자를 출산하였다. 다음해에 아기태실에 대한 가봉을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 17. 무술년(1478) 가을 9월에 거정이 중궁태실증고사 겸 안태의 명을 받고 예천의 용문동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다시 신거정을 본도의 순찰사로 임명하시므로, 여러 고을을 순력하면서 50일 동안에 예천을 네번 왔는바 ...<sup>31)</sup>

자료 18. 무술년 ... 9월에 중궁의 태실증고안태사의 명을 받고 충청도와 경상도에 내려갔는데 ...<sup>32)</sup>

자료 19. 태지석 : 景泰六年閏六月初一日生/王妃尹氏胎成化十四年十一月十二日午時藏<sup>33)</sup>

위의 자료를 보면 1478년에 서거정이 중궁의 태실설치에 임무를 맡아 가봉태실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태지석은 폐비윤씨가 1455년에 출생하였으며, 왕비의 태실을 1478년에 가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태지석은

30) 『성종실록』 8년 1월 5일.

31) 徐居正 著·한국고전 종합DB 역, 『四佳集』 보유3 시류.

32) 장문철, 1997, 「徐居正 誌石」, 『京畿道博物館 年報』, 89·99~100쪽.  
李周煥 外, 앞의 책, 42쪽.

33)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西三陵胎室』, 80쪽.

폐비윤씨의 아기태지석이 아니고 가봉태지석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폐비윤씨의 태실이 예천에 있는데 길지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길지가 아니면 이장하고, 수호군을 두어 봉심하자는 논의가 1477년에 있을 후, 1478년에 서거정으로 하여금 가봉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폐비윤씨의 아기태실은 적어도 예천에 있던 것을 왕비로 책봉된 이후에 아기태실을 살펴서 좋지 않으면 이전하여 가봉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1478년에 가봉하였다. 이 태실도 정희왕후와 같이 부친인 윤기전이 예천군수로 재임 중에 출산을 하자 예천에 매태하였다. 또한 사심능력으로 이봉할 때 가봉태지석이 출토된 것으로 보면 가봉태실을 조성할 때에 지하유구까지 새로 조성한 것으로 보면 아기태실을 현위치로 이봉하여 가봉태실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II. 왕비 태실의 考古資料 검토

### 1. 소헌왕후 태실

소헌왕후 태실은 기존에 보고된 바 있다.<sup>34)</sup> 소헌왕후 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95년에 경기도 양주군의 사저에서 태어나 민간의 태처리 습속대로 매태한 것을 1418년 왕비에 책봉되고 20년이 지난 1438년 5월 15일에 경상도 순흥부로 이장하여 가봉태실로 다시 장태되었다. 초기의 기록에는 장태한 기사만이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가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후 수개된 자료를 보면 전모는 아니어도 일부는 추정할 수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34) 李周煥 外, 앞의 책, 20~21쪽.

- 자료 20. 병오(1666) 5월 24일, 소헌왕후 태봉 석물 개수 : …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고 버려진 상태이며, 지키는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 팔면 난간의 橫石이 모두 퇴락해서 8개 중 3개는 세 동강이 나고, 2개는 두 동강이 났으며, 柱石 8개 중 2개는 花頭가 부러지고 깨졌으며, 나머지는 뒤쪽으로 누워 있었기에 …<sup>35)</sup>
- 자료 21. 병오(1666) 9월 초6일 : … 소헌왕후 태실이 석물 보수와 벌목을 시작하는 길일을, 일관을 시켜 택일하게 하였더니 오는 10월 12일 묘시에 먼저 고유제를 지내고 같은 날 첫새벽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sup>36)</sup>
- 자료 22. 정사(1677) 8월 초7일 : … 중종대왕의 태봉 석물이 퇴락했을 뿐 아니라 …, 석물을 개수하는 일은 지난 해 있었던 소헌왕후의 태실을 개수한 전례대로 고쳐야 할 곳은 고치고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은 그대로 두며, 부러지고 깨진 돌은 깨끗한 곳에 묻는 것이 마땅하옵니다.<sup>37)</sup>

위의 자료는 1666년 소헌왕후 가봉태실을 수개하자는 것으로 난간 橫石은 팔각형인데 8개이고, 이 중에서 3개는 세 동강으로, 2개는 두 동강으로 잘려졌으며, 柱石은 8개인데 이 중에서 2개의 花頭가 부러지고 깨졌으며, 나머지는



【그림 4】 소헌왕후 태실지

뒤쪽으로 쓰러졌다고 하였다. 이는 가봉태실이 전체적으로 평면이 8각이고 난간석도 팔면체로 조각되었는데 소헌왕후의 가봉태실 부재도 이와 동일하게 조영되었음을 추측해하고 있다. 현재는 묘지로 변해 있지만 현장에 남아 있는 【그림 5】에서 보이는 부재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소헌왕후의 가봉태실 개수는 중종 가봉태실 수개의 모범이 되었음도 알 수 있어

35)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51~52쪽.

36) 위의 책, 52~53쪽.

37) 위의 책, 59~60쪽.



【그림 5】 가봉태실 석물<sup>38)</sup>

서 추후에 중종태실 석물과 비교연구도 요망된다.

소헌왕후의 태호는 태실지에서 반출된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태호는 반파된 뚜껑편 1점과 파손되어 원형을 알기 어려운 3개체분의 호편이 5점으로 추정된 견해와 【그림 6】의 ⑤를 뚜껑편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 태호편들은 너문·소국화문·선문 등이 시문된 분청자기로 1395년경 설치한 소헌왕후의 아기태실에서 출토되어 가봉태실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1438년에 가봉태실을 설치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sup>40)</sup>



【그림 6】 가봉태실 태호편<sup>39)</sup>

38) 심현용, 2014, 앞의 논문, 78~80쪽.

3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20쪽.

梁潤美, 2013, 앞의 논문, 156쪽.

## 2. 정희왕후 태실

정희왕후의 胎室址는 문헌자료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수타사 경내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태실의 위치문제는 두가지의 설이 있다.<sup>41)</sup> 여기서는 수타사 서쪽의 덕지천 건너편 산정부로 비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산정부는 뒤편에서 연결되는 주능선을 맥으로 하고 산맥의 끝부분에서 능성이 돌출되었다가 덕지천변으로 급강하하는 경사지를 형성하여 일반적인 태봉산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산정부에는 가봉태실에서 보여지는 가공석재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주변지역에는 자연석 십여점이 흩어져 있고 인위적으로 파헤쳐진 흔적이 확인된다. 이것이 軍의 훈련장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민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단지 가공된 석재가 산 아래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그림 7】 태봉산 전경



【그림 8】 태봉산 산정부

40) 梁潤美, 2013, 「朝鮮 15世紀 安胎用 陶磁器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쪽.  
심현용, 2014, 앞의 논문, 85~87쪽.

41) 李周煥 外, 앞의 책, 33~35쪽.  
洪性益, 2008, 앞의 논문, 59~74쪽

정희왕후의 남편인 세조의 태실은 경북 성주군 인촌리에 18명의 형제 태실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그림 9】. 세조가 왕위에 등극하자 세조의 아기태실에 대한 가봉이 논의되었다. 이에 세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료 23. … “御胎室이 星州의 大君과 여러 君의 胎室 곁에 있으며, 또한 儀物도 없으니, 청컨대 장소를 가려서 移安하고 先王의 舊禮에 의하여 의물을 설치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명하여 標石을 없애고 비를 세워 구별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碑를 세웠다. “… 대군과 여러 군의 태를 성주 북쪽 20리 禪石山의 산등성이에 갈무리하게 하고 각각 돌을 세워 이를 標하였는데, 주상의 聖胎도 또한 그 가운데 들어 있어 표하여 이르기를, ‘수양대군의 室’이라 하였다. 지금은 하늘의 命을 받들어 왕위에 오른 지 이미 8년이 지났으므로 禮官이 급히 祖宗의 故事에 의하여 따로 자리를 보아 어태를 이안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형제가 태를 같이 하였는데 어찌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시고, 의물을 설치하기를 청하여도 역시 윤택하지 아니하시며 다만 표석을 없애고 비를 세워 기록할 것을 명하여 힘써 일을 덜게 하셨다.42)

이러한 명으로 인하여 현재도 세조의 태실은 귀부를 갖춘 가봉비만이 있고 나머지는 아기태실 그대로 존치되었다. 그의 능인 光陵도 이전의 능제와 달리 약식화된 능제를 보이며 이는 후대의 모범이 되었다.43) 따라서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태실도 가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그

42) 『세조실록』 8년 9월 14일.

43) 『예종실록』 즉위년 9월 17일. 이러한 면은 그가 자신의 葬禮에 대하여 명한 것을 보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처음에 태상왕이 遺命하기를, “죽으면 속히 씌어야 하니, 石室과 石槨을 마련하지 말라.”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六曹의 참판 이상을 불러서 회의하니, 신숙주·구치관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석실을 쓰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니, 신숙주 등이 다시 아뢰기를, “안에는 석실을 쓰고 밖에는 단지 石欄干만 설치하여, 石羊·石馬 등의 儀物은 모두 예전대로 하소서.”하였다.’

가 조선전기에 好佛政策을 펼친 임금으로 주목되는데 수타사에는 보물 제745-호인 『월인석보』가 전해지고 있다. 『월인석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하여 1459년(세조 5)에 편



【그림 9】 세조의 형제 태실군

찬한 불교경전이다. 따라서 세조가 번역과 출판한 불교서적을 자신의 부인인 정희왕후의 태가 봉안되어 있는 수타사를 祝靈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이에 감사의 표시로 수타사에 봉안하여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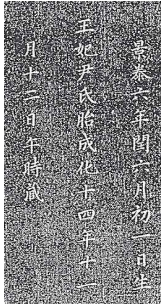
### 3. 폐비윤씨 태실

태실지에 남아 있는 고고유물은 귀부를 갖춘 가봉비와 지하 석함의 개석으로 추정되는 원형의 석재가 남아 있다. 가봉비는 귀부에 이수를 조각한 비신을 세웠으며 비의 앞면에는 「王妃胎室」<sup>45)</sup>이라 새기고, 뒷면에는 「成化十四年/二月十五日」이라 새겼는데 명문만을 인위적으로 파손하여 판독하기가 어렵다. 이는 윤씨가 왕비에서 폐위되고 사사되자 지방관리 또는 토호세력들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례로 성주군에 세종의 18왕자 태실이 있는데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던 그의 형제와 단종의 태실을 파괴한 사례에서도 보여지고 있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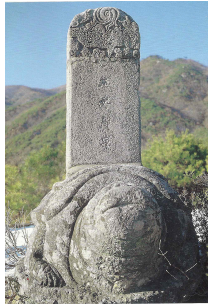
44) 태실을 설치하고 이를 祝靈하기 위한 願堂寺刹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정종은 직지사, 세종의 18왕자는 선석사, 단종은 법림사, 선조는 오덕사를 원당사찰로 지정했다. 오덕사는 일제강점기까지도 선조 자신의 작품인 屏風과 여러 하사품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45) 李周煥 外, 앞의 책, 44~45쪽.

이재완, 2013, 「경북 예천지역 태실에 관한 일고찰」, 『고궁문화』 6, 109~110쪽.



【그림 10】  
태지



【그림 11】가봉비



【그림 12】폐비윤씨 가봉비

이 태실은 이왕직에서 1928년부터 1934년까지 전국의 태실 54기를 서남능역으로 이봉할 때에 함께 옮겨진다.<sup>47)</sup> 이때 확인된 고고자료는 태지석 1점, 태호 2점이다. 태지석의 재질은 오석이며, 가로 15.8cm, 세로 22.5cm, 두께 3.5cm로 명문은 「景泰六年閏六月初一日生/王妃尹氏胎成化十四年十一/月十二日午時藏」이라 새겼다. 즉, 1454년 6월 1일에 출생한 왕비윤씨의 태를 1478년 11월 12일에 장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태지석을 보면 폐비윤씨의 아기태를 왕비된 이후에 다시 장태하면서 태지석을 제작한 것이다. 태호의 【그림 13】과 【그림 15】를 비교해 보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림 14】인 외호가 바뀌었다. 처음 봉안한 태호를 보면 내·외호 2개인데 외호는 저부로 내려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장신형으로 동체부의 중간에서 약간 상단부에 4개의 「◎」형의 고리를 달고 있으며 뚜껑이 있다. 전체적으로 백토분장을 하였고 뚜껑은 왕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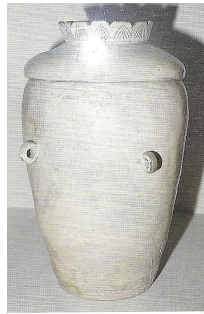
46) 『세조실록』 4년 7월 8일. 「禮曹에서 아뢰기를, “성주 선석산에 主上의 태실을 봉안 하였으나, 그러나 여러 大君과 여러 君과 亂臣 李瑜의 태실이 그 사이에 섞여서 자리하였고, 또 범림산에 魯山君의 태실이 있으니, 청컨대 여러 대군과 여러 군의 태실을 옮기고,瑜와 魯山君의 태실은 철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47) 李王職, 1934, 『胎封』(藏書閣 所藏). 서삼능역의 태실 집장지에 건립된 비석의 앞면에는 「燕山君母尹氏胎室」이라 새기고, 뒷면은 「自慶北體泉郡龍門面移藏 / ▽▽▽年五月」이다. 「▽▽▽」는 「昭和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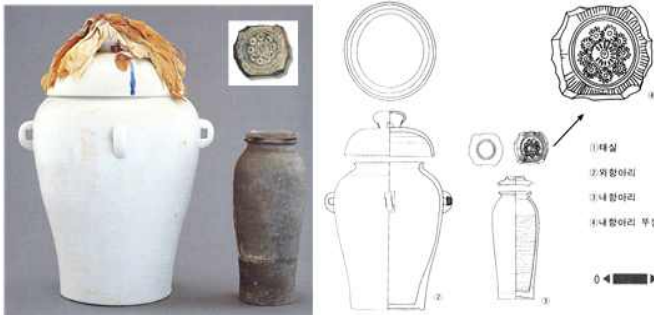
축소판과 같은 형태를 띤 분청자기이다. 내호는 높이가 27.3cm로 細長形의 흑회색 경질도기이고 뚜껑은 국화문·소국화문·연관문대를 시문한 분청자기이다. 구경이 8.5cm, 저경은 10cm이다. 서삼능역으로 이봉한 태실에서 출토된 외호는 1930년대에 제작된 백자로 높이가 37.6cm이고 동체부 상단부에 「ㄷ」자형의 고리를 달았다. 뚜껑은 높이가 11.5cm로 손잡이에는 4방향의 구멍이 만들어져 동체부와 끈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 태호



【그림 14】 태호



【그림 15】 태호

### Ⅲ. 몇가지 異說의 재검토

#### 1. 소헌왕후 태실

소헌왕후의 태실에 대한 이견은 크게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경북 예천의 용문사 경내에 소재한 폐비윤씨 태실과의 혼동문제이고 또하나의 현제의 소헌왕후태실을 고려 충렬왕의 태실로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폐비윤씨 태실을 소헌왕후 태실로 본 시각은 폐비윤씨 태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충렬왕 태실과의 혼선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24, 순흥면 배점리 : 언덕의 꼭대기에 평탄한 약 10평의 주위에 여러 개의 柵石이 있다. 부근에 직경 3척의 8각형 및 3척 방형의 蓋石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고려 충렬왕의 태봉일 것이다.<sup>48)</sup>

위의 자료만을 가지고 이 자료가 소헌왕후 태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자료를 주목하는 것은 산정부에 황죽석을 지칭하는 봉석과 柱石을 의미하는 방형의 석재, 가봉태실의 옥개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석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순흥면 배점리에 이와같이 석재가 사용된 것은 조선시대 가봉태실이고 이 가봉태실은 소헌왕후의 가봉태실 1기뿐이기 때문에 이는 충렬왕의 태실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에 대한 세밀한 고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태실에 대한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자료가 참고가 된다.

48)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59쪽.

- 자료 25. 興州는 … 忠烈王(1274~1308년) 때에 이곳에 태를 묻고 흥녕현령 관으로 고쳤고, 忠肅王 때에도 이 곳에 왕의 태를 묻고 지흥주사로 다시 승격시켰으며 忠穆王 때에도 이곳에 태를 묻고 순흥부로 다시 승격시켰다.<sup>49)</sup>
- 자료 26. 慶元峯 : 군에서 북쪽으로 22리 떨어져 있으며 고려 충숙왕의 태를 안치했다. 輪庵奉 : 군에서 북쪽으로 32리에 있으며 본조 소헌왕후의 태를 안치했다. 草庵洞 : 군에서 북쪽으로 45리 떨어져 있으며 고려 충렬왕의 태를 안치했다. 郁錦洞 : 군에서 북쪽으로 13리 떨어져 있으며 고려 충목왕의 태를 안치했다.<sup>50)</sup>

위의 자료를 보면 경원봉에 충숙왕, 윤암봉에 소헌왕후, 초암동에 충렬왕, 육금동에 충목왕의 태를 안치했다고 하였다. 즉, 소헌왕후는 군 북쪽 32리의 윤암봉에, 충렬왕은 군 북쪽 45리에 있는 초암동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에서 방향과 거리표현의 정확성은 신빙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문장에서의 거리는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는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석물을 살펴 볼 때 소헌왕후의 가봉태실이 붕괴되고 이들 석재가 흩어져 있는 현상을 소헌왕후 태실을 충렬왕 태실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정희왕후 태실

정희왕후의 태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처음 보이고 이후에도 여러 지리지에서 흥천 공작산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공작산이라는 지명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희왕후의 태실지를 최초로 언급한 『朝鮮의 胎室』은<sup>51)</sup> 수타사의 금

49) 신서원, 1997, 『北譯 高麗史』 5책, 473쪽.

50)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493쪽.

당인 대적광전의 뒷산으로 지적하였다.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산정부에 있는 석물을 태석으로 보았으며 사찰 입구 다리 앞에 세워진 下馬碑를 태실에 관련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태석으로 제시한 석물은 가봉 태실에 사용한 석재이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정희왕후는 아기 태실을 가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석재는 자연석으로 가봉 태실에 사용된 인공석재가 아니다. 또한 이 산은 멀리서 외관상으로 볼 때에는 돌출된 산처럼 보여서 태실지로 이용될 태봉산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舊河道여서 주변의 산맥과 단절되어 뒷산과 태봉산이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산정부가 긴 능선과 같이 형성되어 산정부에 태실을 설치할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둘째로 하마비는 높이 약 135cm, 폭 50cm 내외, 두께 22cm 정도의 자연석에 검은색 페인트로 「下馬碑」라 썼다. 하마비는 숙련된 석공에 의해 비갈의 형태를 갖추도록 제작되고 글자는 음각으로 조아내는 기법으로 건립되는데, 경종·문조·순조의 가봉태실에서 확인되는 하마비도 이러한 방식으로 건립되었다.<sup>52)</sup> 그런데 이 석재는 1984년경 당시의 수타사 주지였던 학명스님이 자연석을 개천에서 실어 온 것이고, 「下馬碑」라는 글씨는 검은 페인트로 쓴 것이다.<sup>53)</sup>



【그림 16】 석재



【그림 17】 ㉠지점 산정부



【그림 18】 하마비

51) 李周煥 外, 앞의 책, 33~34·135~137쪽.

江原文化財研究所,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洪川郡』, 316쪽.

52) 李周煥 外, 앞의 책, 80·100·104쪽.

53) 鶴鳴(현, 영월군 영월읍 禁夢庵 주지) 스님 口述.

### 3. 폐비윤씨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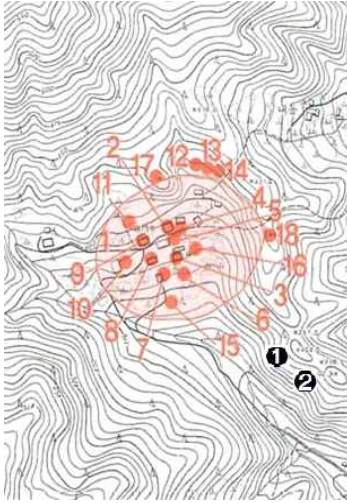
용문사 좌측 산능성의 태실 주인공을 폐비윤씨가 아니라 소헌왕후라는 설이 있고, 고려시대 명종의 태자인 강종의 태실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명종의 태자태실을 설치했다는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 27. 重修龍門寺記 : … 신묘년(명종1, 1171년)에 음양을 담당하는 관리가 현재 황태자의 태를 묻을 곳으로 사찰 문밖의 왼편 봉우리 꼭대기를 점쳐 정하였다. … 황태자의 태를 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조중에 청하여 사찰의 이름을 昌期寺로 바꾸었다.<sup>54)</sup>

자료 28. 龍門寺 : 명종 때에 태자의 태를 절의 왼쪽에 있는 봉우리에 藏置하고 이름을 昌期寺라고 고치었다.<sup>55)</sup>

위의 자료를 볼 때 용문사 경내에 고려시대에 이미 태실이 설치되고 있다. 또한 그 위치도 명확히 지시하고 있는데 명종의 태자인 강종의<sup>56)</sup> 태를 1171년(명종1) 이후에 장태하였고, 중수용문사비는 1185년(명종15)에 건립되므로 이 비문은 자료는 신빙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점이 폐비윤씨의 가봉태실지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면, 【그림 19】에서 용문사의 왼쪽 능선에는 2개의 산정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❶과 ❷로 표기하였는데 ❷지점은 폐비윤씨의 태실지이고 ❶지점이 지도에서는 돌출처럼 보여지는데 현장을 조사하면 주맥에서 산능이 전개되는 능선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의 태실지의 형상이 어떠한지 밝혀진 예가

54) 용문사 정보박물관, 2006, 『용문사』, 14~15쪽.  
55)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477쪽.  
56) 신서원, 1992, 『北譯 高麗史』 2책, 488쪽.  
57) 大邱大學校 博物館,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醴泉郡』, 53쪽.



【그림 19】 폐비윤씨 태실 위치도<sup>57)</sup>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 태실의 풍수적인 입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고려시대 태실들이 대부분 봉우리에 장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❶과 ❷을 비교우위론적으로 볼 때 ❶의 입지보다는 ❷의 입지가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도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것은 만약 강종의 태를 ❷지점에 장태하였다면 폐비윤씨의 태를 가봉할 때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지점을 왕후의 태실지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宣

祖의 경우 그의 태실 예정지인 춘천과 해주에서 선대의 장태사실이 확인되자 장소를 옮겨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으로 정하여 장태한 예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sup>58)</sup>

또한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의 태실지로 오인된 자료가 보이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서 바로잡고자 한다. 자료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 29. 용문사기 : … 소헌왕후의 태실을 봉안하고 성화14년 11월 12일 비를 세웠으며, 세조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傳旨를 내려 이르길 “경상도 예천의 용문사는 감사와 수령에게 이미 전지한 대로 더욱 살펴 한층 완호하고 집역을 영구히 없애줄 것”이라 … 건륭 48년 계묘 9월 초엿새에는 문효세자의 태실을 봉안하였다.<sup>59)</sup>

58) 『선조수정실록』 3년 2월 1일.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연려실기술』 IX, 151쪽.  
 洪性益, 1998, 앞의 논문, 78~83쪽.  
 59) 용문사 정보박물관, 앞의 책, 34쪽.

자료 30. 완문 : … 예천군 소백산 용문사는 … 소헌왕후와 문효세자 두 분의 태실을 봉안한 곳이어서 … 왕실에서 특별히 사방의 경계를 정하고 사패금양하여 수호한 유래가 오래더니 … 광무 4년 5월 일장례원.<sup>60)</sup>

위의 자료를 보면 용문사에는 소헌왕후와 문효세자의 태실이 있다고 하였다. 문효세자의 태실지는 【그림 19】에서 17에 해당하는 지점에 현재도 야기비가 있고, 소헌왕후의 태실지는 전하지 않는다. 이는 폐비윤씨의 태실지를 오인한 것이다. 앞에서 소헌왕후와 폐비윤씨 태실에서 각기 살펴보았듯이 영주시 순흥면에 전하는 태실지는 문헌이나 고고자료를 통해 볼 때 소헌왕후의 태실지가 확실하고 용문사 경내에 있는 태실지는 폐비윤씨의 태실지가 확실하다. 그렇다면 왜 오류된 자료가 생산되었는지의 문제가 남는데 이는 조선후기에 들어 조선사회가 전반적으로 붕괴되어가는 시기로 접어들고 사원경제도 같은 궤적 속에서 곤궁해지는 환경에 의하여 각 사찰들은 왕실과의 연계를 짓고 그 인연으로 면세 또는 면역을 받으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명문 판독이 어려운 폐비윤씨의 가봉태실비를 조선의 성군이었던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의 가봉태실로 바뀌어 이를 조정에 전하고 이를 공식화해서 【그림 29】와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주가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sup>61)</sup>

60) 위의 책, 42쪽.

61) 태주가 바뀌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 설치된 인성대군의 태실이 와전되어 단종태실로 가봉되어 의궤까지 발간되었다.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31호(1975.02.12. 지정)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이은식 역, 2000,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의궤』, 사천문화원.

심현용, 2012,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文化財』 45-3, 80~99쪽.

##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전기 왕비의 태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장태 습속은 고려시대에 들어 왕과 그의 태자를 중심으로 태실이 설치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왕과 그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태실이 설치되었으며 재위한 왕들은 가봉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 아기태실을 장대하게 석물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조선전기에는 왕비의 태실도 가봉하는 예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와 성종의 비였던 폐비윤씨가 확인되고 있다.

소헌왕후는 경기도 양주의 私家에서 태어나 이곳에 아기태를 묻었던 것을 왕비가 된 이후에 태를 경상도 영주시 순흥면으로 옮겨 가봉하였다. 이후 몇차례에 걸쳐 조선시대 왕비 태실로는 유일하게 개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종의 태실 개수에 모범사례가 되었다. 가봉태실에서는 분청자기로 만든 태호가 반출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었다. 또한 소헌왕후 태실지는 일제강점기에 고려 충렬왕 태실과 혼돈이 있었으나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수록된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름을 밝혀 보았다.

정희왕후는 충청도 홍성군에서 태어나 강원도 홍천군의 공작산에 태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글에서 윤건이 홍천현감으로 재임할 당시에 정희왕후를 출산하고 아기태를 공작산에 매태한 것을 밝히게 되었다. 또한 세조 자신의 아기태실을 가봉하지 않고 가봉비만을 건립하도록 지시한 것과 자신의 무덤에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라는 유언을 들어 자신의 부인인 정희왕후의 아기태실을 가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태실지에 가봉태실에서 보이는 가공석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자

신의 비인 정희왕후의 태실지도 가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번역하고 출간한 『월인석보』를 태실 원당사찰 기능을 한 수타사에 하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태실의 위치 문제에서 기존에는 수타사의 뒷산을 태실지로 비정하였으나 구전으로 전하는 지명과 풍수적 지형으로 볼 때 현재의 수타사 건너편인 덕지천 서쪽에 작은 봉우리를 태봉산으로 비정하였다.

폐비윤씨는 아기태실지의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윤기견이 단종대에 예천군수로 부임하여 폐비윤씨를 출산하자 아기태를 예천의 어느 곳에 매태한 것을 성종의 비가 된 이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가봉하였다. 이는 태지석에 출생일시와 가봉일시를 기록한 태지석이 출토됨으로써 추정이 가능하다. 즉 아기태실에 가봉을 하였다면 가봉비에서만 가봉일시를 알 수 있을 것인데, 태실의 내부구조인 지하의 태지석까지 새로 제작한 것은 지하구조까지 다시 설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태실은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에 의하여 서삼능역으로 이봉되었는데 이 당시에 분청자기의 외호와 경질도기인 내호가 확인되었다. 이후에 외호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속되고 새로 제작된 백자를 외호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에 들어 이 태실을 소헌왕후의 태실로 오인하였고, 오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용문사는 잡역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사원경제뿐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피폐해지는 과정에서 사찰별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명확히 전하지 않는 태주를 소헌왕후로 명명한 것으로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조선전기 왕비 3인의 아기태실이 부친의 부임지와 연관있는 것은 정희왕후와 폐비윤씨이고, 아기태실지를 옮겨서 가봉태실을 설치하는 예는 소헌왕후와 폐비윤씨이다.

이상으로 조선전기 왕비태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전기 왕비의 태실을 문헌자료와 고고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나아가 태실마다 달리 알려져 온 문제들을 역시 문헌과 고고자료를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사학연구 제117호(2015. 03)

럼에도 이 연구에서 왜 조선전기에 세종과 성종의 왕비만이 태실이 가봉되고 다른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는지 그 사회적 배경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성종의 정비인 공혜왕후와 尹氏의 폐위로 계비가 된 정현왕후의 태실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태실지에 흠어진 여러 석재를 바탕으로 복원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 金富軾 著·李丙燾 譯, 1991,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 一然 著·李民樹 譯, 1990,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 신서원, 1992·1997, 『北譯 高麗史』 2·5책.
- 『세종실록』·『단종실록』·『세조실록』·『예종실록』·『성종실록』·『선조수정실록』.
-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I·VI.
- \_\_\_\_\_, 1985, 『국역 연려실기술』 IX.
- 국사편찬위원회, 1973, 『輿地圖書』, 탐구당.
- 海東古地圖研究所, 2012, 『海東全圖』 上.
- 徐居正 著·한국고전 종합DB 역, 『四佳集』.
- 民族文化, 1987, 『塔源系譜紀略』.
- 塔源寶鑑編纂委員會, 1995, 『塔源寶鑑』 III.
- 서울대학교 奎章閣, 1997, 『江原道邑誌』 六.
- 韓國學文獻研究所, 1982, 『邑誌』 慶尙道②, 아세아문화사.
- \_\_\_\_\_, 1986, 『邑誌』 江原道①, 아세아문화사.
- \_\_\_\_\_, 1986, 『邑誌』 江原道②, 아세아문화사.
- 이은식 역, 2000,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의궤』, 사천문화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國譯 胎封謄錄』.
- 예천문화원, 『國譯 醴泉郡誌』, 예천군, 2014.
- 李王職, 1934, 『胎封』(藏書閣 所藏).
-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 2. 단행본

- 한글학회, 1967, 『한국지명총람』 2 강원편.  
李周煥 外, 1999, 『朝鮮의 胎室』 I · II · III, 전주이씨대동종약원.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西三陵胎室』.  
용문사 정보박물관, 2006, 『용문사』.  
大邱大學校 博物館,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醴泉郡』.  
江原文化財研究所,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洪川郡』.

## 3. 논문

- 심현용, 2012,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文化財』 45-3,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4, 「조선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구성과 구조복원」, 『嶺南考古學』 68, 영남고고학회.  
梁潤美, 2013, 「朝鮮 15世紀 安胎用 陶磁器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완, 2013, 「경북 예천지역 태실에 관한 일고찰」, 『고궁문화』 6, 국립고궁박물관.  
장문철, 1997, 「徐居正 誌石」, 『京畿道博物館 年報』, 경기도박물관.  
洪性益, 1998, 「江原地域 胎室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_\_\_\_\_, 2008, 「홍천 공작산 貞憲王后 胎室址 位置比定」, 『江原文化史研究』 1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_\_\_\_\_, 2014, 「韓國 胎室의 기초적 이해」,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Abstract

# A Study on the Queen's "Gabongtaesil" of the Early Joseon Period

Hong, Sung-ik

This article examines the queen's Placenta Chamber (Taesil) in the early Choseon period. Jangtae convention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Silla period started to establish Placenta Chamber for the king and his crown prince in the later Goryeo period. In the Joseon period, a Placenta Chamber was established not only for the king, but for his children as well. In addition, another procedure called "Gabong" had to be underwent for the king who was on the throne and a baby Placenta Chamber was magnificently built with stone monuments. However, some exceptional examples that even the queen's Placenta Chamber that had underwent the procedure of "Gabo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can be found. These examples include the Queen Soheon who was the wife of King Sejong, and the queen Yun, Seongjong's royal concubine who had been expelled from the palace.

The Queen Soheon was born in Yangju, Gyeonggi-do. The baby placenta that was buried here was moved to Yeongjusi for the process of 'Gabong' and it was known as the Placenta Chamber of the King Choongryeo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owever, it was demonstrated to be untrue based on bibliographic data. In the case of the Queen Jeonghee,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Queen Jeonghee was born when Yoongyeon was

appointed as Hongcheonhyeongam, and that the baby placenta was buried in Gongjaksan. Also, it was seen that as Sejo himself did not let his baby placenta chamber to go under “Gabong” process and instead, he ordered only the tombstone to be built, he left the baby placenta chamber of the Queen Jeonghee as it is. As for the location of the Placenta Chamber, when the name of the place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are taken into account, the small mountaintop on the west side of Deokjicheon across today's Sutasa was seen as Taebongsan. The Placenta Chamber of queen Yun who had been expelled seemed to have been moved to the present location for “Gabong” after she became the queen. This Placenta Chamber was moved to Seosamneungyeok by Lee Wangji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lso, this Placenta Chamber was mistaken as the Placenta Chamber of the Queen Soheon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Yongmunsa has been receiving a favor of being exempted of miscellaneous services due to this Placenta Chamber.

The queen's Placenta Chamber in the early Joseon period was examined as above. The present articl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acts concerning the Placenta Chamber based on bibliographic as well as relic data. Nevertheless, the study was unable to discover the ideological background for explaining why the Placenta Chamber of the queens of King Sejong and King Seongjong were the only ones that underwent the process of ‘Gabong’ and why it cannot be observed in other periods. Such questions remain for further investigation for future studies on the Placenta Chamber.

Keywords: Taebong, Taesil, Gabongtaesil, Queen Soheon, Queen Jeonghee, PyebiYun